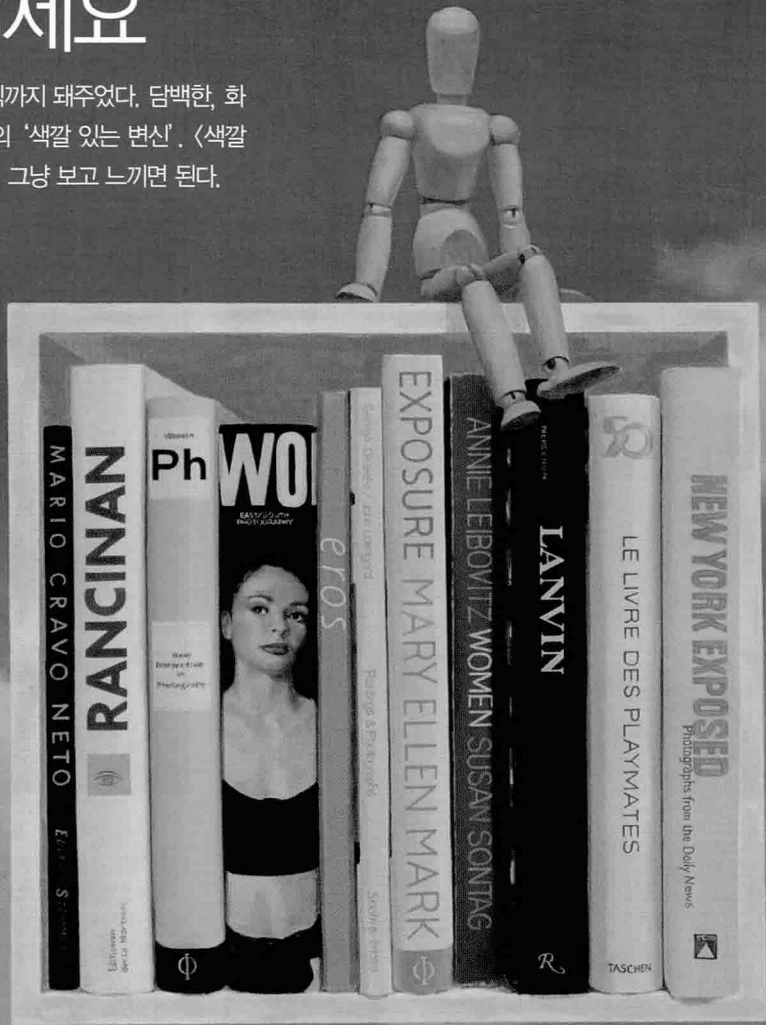


〈색깔 있는 책 풍경〉전

읽지 마세요, 그냥 보고 느끼세요

마음의 양식이 돼주는 책이 이제 미술의 소중한 양식까지 돼주었다. 담백한, 화려한, 또는 유머러스한 오브제로 다시 태어난 책들의 '색깔 있는 변신'. 〈색깔 있는 책 풍경〉전에서는 절대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 그냥 보고 느끼면 된다.

에디터 이승민 자료 제공 갤러리 진선(02-723-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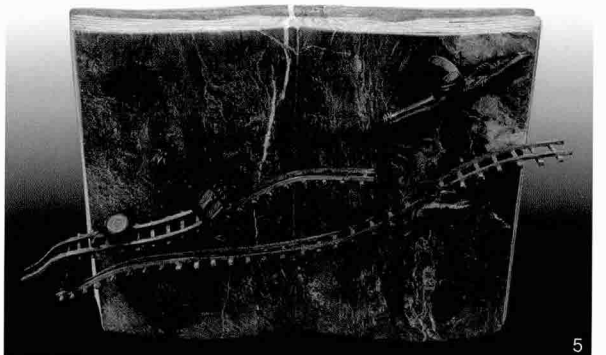


1

책을 모티브로 한 조각 작품, 책을 모티브로 한 인테리어, 책을 모티브로 꾸민 조경...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히 '제 몫' 을 다해주는 책은 생각보다 더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우리 삶과 문화 곳곳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로 발아(發芽)하고 있다.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아우라의 깊이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결과물에 대한 성공이 담보되기 때문일 게다. 10월 26일까지 갤러리 진선에서 열리고 있는 〈색깔 있는 책 풍경〉전 역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책을 소재로 하고 있다. 책상 위에 놓여 있거나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은 그저 생명 없는 물질에 불과하지만 손길이 닿고 책장이 넘어가는 순간 그 속에서는 역사와 문화와 삶의 드라마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이렇듯 이번 전시는 책이 품고 있는 내재적 의미들을 독자적인 모습으로 작품 속에서 전개하고 있는 5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 김근배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 책은 철길이라는 장치 등을 통해 공간적 예술품 속에서 시라는 시간성을 표현해낸다. 몽환적인 느낌 속에 표현되는 서사성은 책 또는 글이 지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장구한 역사를 하나로 묶어내는 책만의 힘을 의미하는 것.

작가 김성호는 과거 예술의 축적인 예술자들을 다시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 내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역사성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의 곳곳에 언제 어디에든 편안히 놓여 있는 가장 흔한 대상 중 하나가 책이지



만 그의 작품 속에서 책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애플단지에서 정지된 화면 같은 심심한 일상에 역사성이라는 생명을 불어넣는 최고의 오브제가 된다. 그런가하면 작가 전영근은 정물적인 책 꾸러미를 통해 지아를 확장시키는 작업을 시도했고, 함명수는 자신만의 붓의 흔적 기법을 통해 책을 매개로 시간의 축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 작가 황용진은 순수 자연인 하늘과 문명의 상징인 책을 대비시킴으로써 시공을 초월한 지아와 현대인의 서사를 표현하고 있다. 미술같은 책의 메커니즘이 그림으로 형상화된 결과 우리의 감성은 더욱 직감적으로 그 멋과 맛을 흡수하게 된다. 독서의 계절, 조금 특이한 책들을 만나러 갤러리로 발길을 옮겨보길... ㉞

- 1 황용진, 'My Landscape-0845, Oil on Canvas, 72.7×90.9cm, 2008
- 2 함명수, 'Accumulation of Books', Oil on Canvas, 227.3×162.1cm, 2008
- 3 김성호, 'Put-disparity of Tastes 4', Oil on Canvas, 120×120cm, 2008
- 4 전영근, '정물', Oil on Canvas, 112×162cm, 2008
- 5 김근배, '책(대장정)', 대리석, 브론즈, 40×15×35cm, 2007